

“The Dead”에서의 Gabriel 의 자아인식의 문제

박 성 수

영어영문학과

(1982. 10. 30 접수)

〈要 約〉

“The Dead”의 마지막 부분에서 Gabriel Conroy 에 의해서 표출되는 심오한 감동은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비된 삶을 영위하는 Dubliners 들에게 참된 자아를 인식하게 해 주는 숭고한 인간성의 한 단면이다. 그것은 비단 죽은 상태와 같은 삶을 지속해 오던 Gabriel 의 마비된 자아를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망각한 채 편협한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 얽매어 살아가는 모든 Dubliners 들에게 삶의 진실된 의미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Gabriel 의 감동은 그가 가치있는 죽음이 무의미한 삶보다는 훨씬 의미있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할 때까지의 삶이란 곧 죽음과 같은 삶이며, 그러한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Gabriel 의 모습은 현대의 기계 문명 속에서 어쩌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Gabriel 이 체험하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달되는 이유도 이같은 사실 때문일 것이다. “The Dead”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사의 신상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The Problem of Gabriel's Self-Awareness in “The Dead”

Park Seong Soo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October 30, 1982)

〈Abstract〉

The closing paragraph of “The Dead” with an impressive scene shows us the higher sides of human character. The profound impression conveyed by Gabriel Conroy gives a new light to the spiritually paralysed citizens of Dublin as well as himself. It not only becomes a significant moment which makes Gabriel realize his real self but also teaches all the Dubliners the real meaning of life.

Gabriel's awareness of his real self becomes possible when he accepts the fact that a valuable death can have more significance than a meaningless life. Until then his egotism has brought him to the state of living death where no solidity and vitality can be seen. Once Gabriel becomes aware of his real self, his egotism disappears and he becomes generous enough to place himself in others' misery. The situation which Gabriel has faced until he becomes aware of his real self is a living death.

The reason why Gabriel's profound impression is so meaningful to us is that all human beings can have the possibility to face that situation, if they forget their real selves. “The Dead” shows us the reality of life which exists beyond time and space.

I.

“The Dead”의 끝부분은 이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신시키면서 인간성의 숭고한 일면을 드러내어 주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창 밖에는 흰 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으며, 회한과 동경,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혼합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공 Gabriel Conroy가 명상에 잠겨 창가에 말없이 서 있다. 이 장엄한 감동적 분위기 속에서 Gabriel의 영혼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생과 사의 경계조차 불분명한 “a grey impalpable word” 속으로 침잠하고 있다.

His soul approached that region where dwell the vast hosts of the dead. He was conscious of, but could not apprehend, their wayward and flickering existence. His own identity was fading out into a grey impalpable world: the solid world itself these dead had one time reared and lived in, was dissolving and dwindling.⁽¹⁾

이 침잠은 종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identity를 찾기 위한 “긴 여행(a journey westward)”일 수도 있으며, 또한 “마비되었던(paralysed)”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시련의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Gabriel이 표출하는 이 숭고한 인간성의 한 단편은 우리들에게도 무한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The Dead”의 성격을 특징지워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글의 목적은 *Dubliners* 내의 단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단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의미를 Gabriel의 감동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ubliners* 내에서의 “The Dead”의 의미, Gabriel이 숭고한 감동에 이르는 과정과 그 본질,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감동이 지니는 의의 등을 살펴볼 것이다.

T. S. Eliot는 “The Dead”가 “인간성의 가장 고결한 면”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Joyce의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일

부 비평가들이 Joyce가 “the eternal and serene beauty of nature”를 구원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As for his inability to appreciate ‘the higher sides of human character,’ this stricture world, perhaps, be more applicable to Jonathan Swift, and I should ask the reader, before accepting such a judgement, to consider “The Dead,” in *Dubliners*—one of the finest stories in the language.⁽²⁾

이와 같은 Eliot의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가 지적한 “the higher sides of human character”란 바로 Gabriel이 보여주는 숭고한 인간적 감동은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체념하는 감동은 그 자신에게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보편적인 성질의 감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감동은 이 작품이 수록된 *Dubliners* 내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현이다.

*Dubliners*에 수록된 15개의 단편을 모두 읽어본 독자라면 이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06년 5월에 Joyce는 Dulin의 출판업자 Grant Richards에게 보낸 서한에서 *Dubliners*의 집단의 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my intention was to write a chapter of the moral history of my country and I chose Dublin for the scene because that city seemed to me the centre of paralysis.⁽³⁾

“The Dead”도 Joyce가 “the center of paralysis”라고 여긴 Dublin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만큼,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Gabriel의 감동은 이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Dubliners* 전체를 통틀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Gabriel에 의해서 제시되는 이 숭고한 감동이 소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큰 데 비해서 실제로 그가 감동적 명상에 잠겨있는 부분은 불과한 두 페이지에 불과하다. 소설의 표면적인 줄거리로 보건데 중심인물은 이야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Gabriel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외관상 빈틈없는

(1) James Joyce, *Dubliners*, (Penguin Books Ltd., 1968), p.220.

(2) T. S. Eliot (1941), *Horizon*, iii (March), p.173. reprinted in *James Joyce: The Critical Heritage* ed. Robert H. Dem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p.757.

(3) *Selected Letters of Joyce*,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5), p.83.

지식인으로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에 있는 인물로 소개된다. 그는 높은 권력 아부머니들이 주최하는 연례적인 인회에 참석하여 그곳에 온 많은 다른 인물들과 자신의 쾌활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적당한 흥분을 일으키지만 결과적으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인회가 끝난 후 아내 Gretta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로부터 어린 시절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된다. Gretta는 인회가 거의 끝난 무렵 Bartell D'Arcy라는 가수가 불러준 “The Lass of Aughrim”이라는 노래를 듣고 몰려듯 지나간 시절의 애인을 인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의 두려운 벽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온 Gabriel에게 이 고백은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이로 인해 시 오랫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무너지면서 그는 깊은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감동에 있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전개 과정을 좀 더 소설기인 구조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야기의 시점에서부터 Gabriel이 아내로부터 고백을 듣는 장면까지를 main plot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그가 감동적인 분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최종 부분을 cod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coda가 main plot에 비해서 지나치게 짧은 점이 이 소설에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구조상의 특징인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소설의 핵심 부분인 Gabriel의 감동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극적인 전개가 없는 즐거움을 따라 많은 인물들과 접촉해야 하며 어떤 면에서는 지루한 정도의 긴 여장을 거쳐야만 한다. 이 구조면에서의 한 특색은 물론 치밀한 작가인 Joyce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감함을 느낀다. David Daiches의 다음과 같은 의문은 그러한 공감증을 내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But about three-quarters of the story is taken up with a vivid and detailed account of the party, and on first reading the story we are puzzled to know why Joyce devotes so much care and space to the party if the ending is to be simply Gabriel's change of mood on learning how his wife is really feeling.⁽⁴⁾

전술한 이 글의 목적도 상극적으로는 구조상의 특색을 포함한 Joyce의 의도를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Gabriel의 당혹한 감동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Dubliners*에 수록된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배경이 되는 Dublin과 Dublin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각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he Dead”에서는 그 주제가 뚜렷이 의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에 관한 비평가들의 많은 견해들 중의 일례로서 Daiches는 표면적인 전개과정에서 중심 인물로 생각되는 Gabriel에게 그림을 두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a man's withdrawal into the circle of his own egotism, a number of external factors trying progressively to break down the walls of that circle, and those walls being finally broken down by the culminating assault on his egotism coming simultaneously from without, as an incident affecting him, and from within, as an increase of understanding.⁽⁵⁾

그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Gabriel의 이야기이며, 그는 egotism의 벽으로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는 인물로 일관하다가 결국 비외부의 도전에 부딪쳐 당좌하고 있던 자신의 광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Gabriel에게 자아 인식의 체계가 되는 “the assault on the walled circle of his [Gabriel's] egotism”은 주로 세 사람의 여성(Lily, Miss Ivors, Gretta)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는 이 공격에 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다가 결국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the circle of egotism”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Daiches의 견해는 세 사람의 여성과 Gabriel과의 관계에만 치중함으로써 그 외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된 편을 보여 준다.

물론 소설속에서 Gabriel은 “사건은 청기에서 비롯되고, 동시에 사건은 심적을 변화시킨다”⁽⁶⁾는 의

(4) David Daiches, *The Novel and the Modern World*(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p.74~75.

(5) *Ibid.*, p.74.

(6) E.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Ltd., 1962), p.98.

비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체험을 통해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게 되며 여기서 인식된 진실과 자아와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 하고 고통을 겪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iches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중심한 새 여성회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직접 간접으로 Gabriel의 자아 인식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Gabriel은 포괄할 수 많은 등장 인물을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들의 공통점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는 상태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이라는 사실이다. Gabriel은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Dubliners*의 다른 소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도덕적, 지적 혹은 정신적으로 마비된”⁽⁷⁾ 인물의 전형인 것과 같다. Gabriel의 egotism의 밖으로 자신을 둘러싸므로써 자신의 정신을 죽은 상태로 만들고 있듯이 대부분의 인물들도 어떠한 공부를 일으키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정신 상태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참석하는 연회도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으며 무의미한 것이다. 연회 자체는 화려하게 꾸며지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은 말들을 하며 즐거움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진실된 말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그들이 이 연회에 참석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이 연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다.

Never once had it fallen flat. For years and years it had gone off in splendid style, as long as anyone could remember...⁽⁸⁾

강신'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은 외모나 행동으로는 부인할 자기 주장의 형태 등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있다. 다음의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Gabriel의 자기 중심 주의의 자만심은 그의 외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He was a stout, tallish young man. The high colour of his cheeks pushed upwards even to his forehead, where it scattered it-

self in a few formless patches of pale red; and on his hairless face there scintillated restlessly the polished lenses and the bright gilt rims of the glasses which screened his delicate and restless eyes. His glossy black hair was parted in the middle and brushed in a long curve behind his ears where it curled slightly beneath the grooves left by his hat.⁽⁹⁾

그의 외모는 아무에게도 흠이 잡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가다듬어져 있어서, 자신의 대부분을 솔चे로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인물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세심함은 자신이 고수하고 있는 세계에 어느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Gabriel의 egotism은 명백하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한다. 즉 그의 egotism은 적극적으로 보다는 소극적인 자기 방어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마저도 자신의 당위성에 의해서만 그 존재 이유를 지니게 되므로 그는 조그마한 변동이나 융통성도 허락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소한 일에도 심사라 충격을 받게 된다. 그가 “I suppose we'll be going to your wedding one of these fine days with your young man, eh?”라고 Lily에게 말을 건넰 때, 그녀는 “The men that is now is only all palaver and what they can get out of you.”라고 툭명스럽게 대답한다. 이에 대해 Gabriel이 얼굴을 붉힐 정도로 당황하는 사실은 그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매우 지향치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가 Lily에게 보인 관심도 사실은 질정함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물은 “egotistical point of view”⁽¹⁰⁾에 의해서 판단하는 편협한 자기 중심 주의의 한 단면인 것이다. 그러므로 Lily의 툭명스러운 반응은 당연한 것이며, 이 사실은 단지 Gabriel과 Lily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연회에 참석한 모든 인물들 사이에 질정함 마음의 교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Daiches는 Lily의 Gabriel에 대한 반응은 “the first attempt to break down the circle of Gabriel's egotism”⁽¹¹⁾이라고 지적하지만, Lily의 강-

(7)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p.4.

(8) *Dubliners*, p.173.

(9) *Ibid.*, p.176.

(10) Daiches, p.76.

(11) *Ibid.*, p.75.

격은 오히려 Gabriel에게 자기 방어 본능을 강화시켜 주는 면도 없지 않다.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그가 Lily에게 돈을 주는 행위도 일종의 소극적 자기 방어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Freddy Malins는 Gabriel과는 정반대로 단정하지 못한 외모를 지닌 인물이지만, 그도 역시 강한 자기 중심적 행동을 취한다.

Freddy Malins의 외모도 Gabriel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사실적인 수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His face was fleshy and pallid, touched with colour only at the thick hanging lobes of his ears and at the wide wings of his nose. He had coarse features, a blunt nose, a convex and receding brow, tumid and protruded lips. His heavy-lidded eyes and the disorder of his scanty hair made him look sleepy.⁽¹²⁾

이같은 사실적인 묘사 수법은 연회 석상의 석탁에 대한 묘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내, 이것은 인물들의 마비된 정신 상태나 생명력 없는 연회의 모습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irony라고 볼 수 있다. Freddy Malins는 자신의 외모에서 나타나듯이 무절제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자기 이외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인물인 Mr. Brown은 Freddy Malins와 비슷하게 male vitality를 보여 주지만, 그것도 지나친 자신감에서 출발된 것일 뿐이다. 그는 (Mr. Brown) 자기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자랑하며 다른 참석 인물들, 특히 Freddy Malins에 비해서 상당한 자기 주장을 펴지만, 그의 주장은 의사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연회 참석자들에게 맡아 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Aunt Kate와 다른 여성들에 의해서 무시당한 채 공허한 웃음만 짓고 말 뿐이다. 참석자들 중에서 Miss Ivors를 제외하고 소극적이거나 연회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인물로서 Mr. Bartell D'Arcy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참석자들과 구별할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회 석상에서 노래부르기를 거절함으로써 간접적이거나 이 연회의 불모성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Gratta로 하여

금 회상에 잠기게 만드는 “The Lass of Aughrim”을 불러주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Mr. Bartell D'Arcy도 유명한 가수에 대한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끝까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는 자기 중심적인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Aunt Julia의 모습이나 무기력한 Aunt Kate의 행동은 그들이 연회의 주최자라는 점에서 더욱 연회의 불모성을 더해 준다. 참석자들이 이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연회에 참석하여 외관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망각한 채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 가치관에 입매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Miss Morkans가 Gabriel의 연회 참석을 애타게 고대하는 이유도 그들이 진심으로 Gabriel의 참석을 반가워하기 보다는 그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명성과 위장된 교양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연회를 빛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다. Aunt Kate는 Julia가 교회 합창단에서 봉사한 내 대해 교회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은 사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평을 서슴치 않는다. 즉 그녀는 물질적 이유만으로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마저 모독하는 속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 She wouldn't be said or led by anyone, slaving there in that choir night and day, Six o'clock on Christmas morning! And all for what?⁽¹³⁾

그러므로 Gabriel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는 그들 모두 비슷한 종류의 egotism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진실한 것일 수 없다. Gabriel도 친척 아주머니들의 가장된 친절을 의식한 듯 만만 연설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we have been the recipients—or perhaps, I had better say, the victims—of the hospitality of certain good ladies.⁽¹⁴⁾

또 그는 아주머니들이 매년 연회를 베풀어 주는 사실에 대해 “the tradition of genuine warm-hearted courteous Irish hospitality”라고 말하며 극구 칭찬하나, 다음속으로는 그들을 “only two ignorant women”이라고 경멸하고 있다. 다음의 귀

(12) *Dubliners*, p.182.

(13) *Ibid.*, pp.191~192.

(14) *Ibid.*, p.200.

절은 Gabriel의 타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The indelicate clacking of the men's heels and shuffling of their soles reminded him that their grade of culture differed from his.⁽¹⁵⁾

Miss Ivors는 Lily와는 달리 Gabriel의 위장된 교양과 오만한 자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인물이다. 또한 그녀는 반찬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돌아감으로써 이 죽은 자들의 집단에 소속되기를 거부한다. 미북 Gabriel과는 대학 동창이라는 관계이지만 그녀는 그가 영국계 신문인 *The Daily Express*에 기고하는 것을 비인종적인 행위로 비난한다. 그녀가 Gabriel을 “West Briton”이라고까지 극언하며 추궁하자, 결국 Gabriel은 “... Irish is not my language. ...I'm sick of my own country, sick of it!”라고 말하며 자신의 본심을 토로하게 된다. 그녀의 Gabriel에 대한 집요한 추궁은 David Daiches의 표현대로 단순히 “the second assault on Gabriel's egotism”⁽¹⁶⁾이라기 보다, 그것이 Lily의 공격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Miss Ivors는 Gabriel의 위장된 교양과 민족주의를 갈라한 유일한 인물이다. Gabriel은 이 사건 직후

“How cool it must be outside! ... The snow would be lying on the branches of the trees and forming a bright cap on the top of the wellington Monument. How much more pleasant it would be there than at the supper table!”⁽¹⁷⁾

에서 암시하듯이 최초로 이 연회에서의 탈출을 생각한다. 완전한 의미에서 연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두 사람 즉 Miss Ivors와 Mr. Bartell D'Arcy는 Gabriel의 자아 인식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Miss Ivors가 돌아간 후에 Gabriel은 그녀에게서 받은 심히 충격을 보상

하려는 듯이 더욱 장중하고 심각한 어조로 연설하지만 이미 그의 내부에서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본심과는 다른 Gabriel의 연설 내용이 그러하듯이 참가자들의 말이나 행동이 과장되고 일방적일 수록 그들의 기신이 죽어 있음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즉 그들의 육체와 언어는 살아 있지만 정신은 이미 죽은 상태인 것이다. Hugh Kenner는 “It is in language that the dead city is preserved; and it is language that maintains the citizens in deadness.”⁽¹⁸⁾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지내던 한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Ⅲ.

Bernard Benstock은 “The Dead”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the deceased, the moribund, and the living dead”⁽¹⁹⁾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주로 “the living dead”에 속하는 인물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태도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죽음과 관련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death-in-life 상태이기 때문이다. Mount Melleray의 수도원에서 Trappist 승려들이 관속에서 잠자는 의식을 두고 Mary Jane은 “The coffin is to remind them of their last end.”라고 언급하지만, 그들의 기이한 의식은 글 연회에 참가한 “the living dead”들이 전체 영위하는 삶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 *Romeo and Juliet* 중의 balcony scene을 그린 그림은 과거와 현재에 걸친 두 종류의 불운한 사랑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Gretta와 Michael Furey, 그리고 Gabriel Conroy와의 관계는 불행한 사랑이 내포하는 비극적인 일면을 보여준다. 또 비극적 사랑을 노래한 “The Lass of Aughrim” 속에는 죽음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²⁰⁾ W. Y. Tindall의 말대로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set out on his journey westward.”라는 귀절이 전통적인 의미대로 죽음의 의

(15) *Ibid.*, p.177.

(16) Daiches, p.76.

(17) *Dubliners*, p.189.

(18) Hugh Kenner, *Dublin's Joyce* (London: Chatto & Windus, 1955), p.9.

(19) Bernard Benstock, “The Dead”, *James Joyce's Dubliners*, ed. Clive Hart(London: Faber & Faber, 1969), p.153.

(20) “The Lass of Aughrim”은 키죽에게 비린받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한 처녀의 비극적 사랑에 관한 노래이다.

Don Gifford, *Notes for Joyce in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E. P. Dutton & Co. Inc., 1967), p.83.

미한다면, (21) 죽음은 이 소설의 전편에 흐르는 중요한 leitmotif 이자 동시에 이 소설의 내적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결국 Michael Furey 라는 죽은 인물에 의해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경험인 동시에 가장 개체적인 실질의 것이기도 하다. 죽은 자는 스스로의 삶을 죽음으로써 끝을 맺지만, 살아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언저리까지 접근할 수 있으나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Gabriel에게 감지되는 죽음은 실체가 아니라 “impalpable and vindictive being” 이나 “vague world” 등의 형태로 느끼질 수 밖에 없다. Gretta로부터 과거의 사랑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직후에 Gabriel이 느끼는 “무엇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바로 죽음과 비슷한 성질일 것이다.

A vague terror seized Gabriel at this answer, as if, at that hour when he had hoped to triumph, some impalpable and vindictive being was coming against him, gathering forces against him in its vague world. (22)

Gabriel이 타인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와의 차이점을 깨닫기 시작하고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Michael Furey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여 자신을 참모습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이다. 결국 그는 죽음에 의해서 삶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A shameful consciousness of his own person assailed him. He saw himself as a ludicrous figure, acting as a penny-boy for his aunts, a nervous, well-meaning sentimentalist, orating to vulgarians, and idealizing his own clownish lusts, pitiable fatuous fellow he had caught a glimpse of in the mirror. (23)

David Daiches는 Gabriel을 최종적인 자아 인

식으로 인도하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Gretta를 들지만, (24) 사실상 그녀는 Michael Furey와 Gabriel을 연결해 주는 “agency”(25)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Michael Furey라는 죽은 인물에 의해서 뚜렷하게 부각된 죽음은 이 소설의 leitmotif를 이루면서 Gabriel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게 해준다.

Ⅳ.

지금까지 실린 것처럼 죽음 혹은 죽음의 인식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주인공 Gabriel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명상에 잠기게 하고 있다. 그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것은 동정을 느끼게 되는 이 감동적 명상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여러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26) 그것은 곧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에 융합되고, 의식 세계에서의 갈등이 해소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Gabriel이 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the circle of egotism”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실체를 보게 되며, 또한 생명력 없는 무의미한 삶이 가치있는 죽음에 의해서 수정되고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이 숭고한 인간적 과성은 거의 종교적인 경건함마저 띠고 있다. Gabriel의 이 갑작스러운 정신적 변화는 Joyce의 표현을 빌면 이른바 “epiphany”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epiphany는 “an appearance or revelatory manifestation esp. of a divine being”(27)이란 의미를 지니는 종교적인 용어로서, Joyce는 이것을 예술가에게 필요한 “a 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28)이란 뜻으로 사용하였다. Epiphany가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Gabriel도 새로운 인간성의 정립을 위해 예술가와 같은 “정신적 현현”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

(21) Tindall, p. 46.

(22) *Dubliners*, p. 217.

(23) *Ibid.*, pp. 216~217.

(24) Daiches, p. 79.

(25) Tindall, p. 43.

(26) Tindall은 “for Gabriel, facing reality at last, goes westward to encounter life and death.” (Tindall, p. 46)으로, Daiches는 “Gabriel escapes from himself, ...dozing off into unconsciousness,” (Daiches, p. 80)으로, 또 Richard Ellmann은 “a concession, a relinquishment” “The Backgrounds of ‘The Dead’”, *James Joyce*(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 258.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27)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G. & C. Merriam Company, 1973), p. 384.

(28) James Joyce, *Stephen Hero*, ed. John J. Slocum and Herbert Cahoon. (New York: New Directions, 1963), p. 216.

Lionel Trilling은 Gabriel의 이러한 심적 변화를 Joyce가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감정과 동일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This sudden identification of the author with his character is one of the most striking and effective elements of the story.”⁽²⁹⁾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작자와 작품속의 인물과의 동일시는 곧 독자와 인물과의 동일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독자들이 Gabriel의 숭고한 인간적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감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Joyce는 여러가지 narrative technique를 사용하여 소위 “compact unity”⁽³⁰⁾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C. C. Loomis, Jr.도 다음과 같이 독자와 작중 인물간의 무조건적인 동일시 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If the reader identifies himself uncritically with Gabriel at any point in the story, he is liable to miss those very shortcomings which make the vision meaningful.⁽³¹⁾

그러나 Gabriel의 심적 변화가 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그것은 그와 같은 변화로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 자체내에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소심한 성격이 오히려 자신의 심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최종적인 심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의모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자기 중심적 언행 때문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내부 저항적인 성격은 일면 편협하고 융순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실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의 긍정적 요소들은 그가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Lily에게서 예상밖의 통명스러운 대꾸를 들었을 때, Gabriel이 그녀를 질책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는 점이나, Miss Ivors가 근질기게 그의 친영적인 행위를 공격했을 때도, 그가 “he (secs) nothing political in writing reviews

of books.”라는 정도로 말하면서 얼버무리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소심한 성격탓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Freddy Malins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Gabriel에게 “You’re a very generous people, Gabriel.”이라고 말하는 Gretta의 심정은 솔직한 것이다. Gabriel이 만난 연설 내용에 대하여 거듭 생각하는 것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인가를 자기도 모르게 이미 깨닫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Gabriel의 세심한 성격은 거의 여성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눈에서 흘러 내리는 “generous tears”는 자신을 포함한 “all the living and the dead”에게 관대해지는 자신의 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소설 전반에 걸친 Gabriel의 이기적 인생관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인간에 대한 감동이 빈 다른 저항감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V.

Joyce는 Gabriel의 숭고한 감동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detective story와 같은 정도의 긴밀한 구성과 narrative technique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image들을 사용하고 있다.

Robert Humphrey는 인간 의식의 중요하고 또 주관적인 감정을 전달함에 있어서 image와 상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상징주의를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로 Joyce를 들고 있다.

Both image and symbol tend to express something of the quality of privacy in consciousness: the image by suggesting the private emotional values of what is perceived (either directly, through memory, or through imagination); the symbol by suggesting the truncated manner of perceiving and the

(29) Lionel Trilling, *The Experience of Literatur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9), p.298.

(30) C. H. Peake,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p.7.

(31) C. C. Loomis, Jr., “Structure and Sympathy in ‘The Dead,’” From PMLA, LXXV, (March, 1960), reprinted in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Dubliners,’* ed. Peter G. Garre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3), p.111.

expanded meaning⁽³²⁾

Edmund Wilson 도 Joyce 가 자신의 소설에서 독자들을 인물들의 의식속으로 직접 끌고 들어가기 위해 “methods of symbolism”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³⁾ 최근의 Joyce 연구도 그의 상징주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추세이며, 인물이나 구조와 마찬가지로 image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W. Y. Tindall 은 특히 이 작품에서의 image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상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Less apparent but no less functional than character or structure, the images of “The Dead,” more nearly central than those of the earlier stories, embody so much of that meaning that, missing them, the careless reader misses them all.⁽³⁴⁾

그는 중요한 symbol clusters 로써 “light and fire”, “cold and snow” 등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구체적 상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징들을 보는 관점은 그 상징들이 어니까지나 Gabriel 이 느끼는 승고한 감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된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징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지나친 상징주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C.H. Peake 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Dubliners* 전체의 상징주의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symbolmania which afflicts so many critics of *Dubliners* neglects the whole for the part, and also inflates the part until it deforms or destroys the whole.⁽³⁵⁾

또 P.G. Garret 도 “Even when the symbolic relevance of a detail is fairly clear, it does not follow that its symbolism is its most important aspect.”⁽³⁶⁾라고 말하면서 비슷한 견해를 보여 준다.

“The Dead”에서의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한 W. Y. Tindall 자신도 “providing answers, pretending assurance where none is justified, could

be of disservice to text and reader alike.”⁽³⁷⁾라며, 지나친 symbol-hunting 은 오히려 작품의 진정한 해석에 해를 끼칠 수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의 이러한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들 수 있는 많은 상징들 중에서 눈이 가장 인상적인 image 일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눈이 점차로 변화하는 Gabriel 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image 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눈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하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소설의 첫 머리에서 Gabriel 은 고집스레 goloshes 의 착용을 아내에게 강조하며 어깨에 묻은 눈송이를 애써 닦아낸다.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그가 눈에 대해 이룬 두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때의 눈은 Gabriel 이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image 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Miss Ivors 의의 총들이 있는 직후 Gabriel 의 자아는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삶과 연회의 무의미성을 서서히 자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도피처를 생각한다. 이 순간의 그의 정서상태는 그가 Phoenix Park 의 선철한 자기움과 Willington Monument 위에 덮여 있는 눈을 상상하며 최초로 연회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때부터 눈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지며, 더 강한 암시력과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눈의 의미는 Gabriel 이 감동적인 명상에 잠기는 최종 장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David Daiches 는

The snow, which falls indifferently upon all things, covering them with a neutral whiteness and erasing all their differentiating details, is the symbol of identity with the world, ...⁽³⁸⁾

라며 눈의 “neutrality”를 중요시 하며, W. Y. Tindall 은 “Snow is frozen water, and water a traditional image of life. Accepting snow (without goloshes) is accepting life and death;

(32) Report Humphrey, *Stream of Consciousness in the Modern Nove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4), p.78.

(33) Edmund Wilson, *Axel's Cast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9), p.204.

(34) Tindall, p.44.

(35) Peake, p.8.

(36) P.G. Garre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Dubliners*, p.9.

(37) Tindall, p.45.

(38) Daiches, p.81.

...”(39)라며 눈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Richard Ellmann은 눈이 “all the living and the dead”위에 공평하게 내림으로써 죽은자와 산자를 연결해 주는 “mutuality”(40)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같이 눈의 의미를 어느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깊은 명상 속에서의 Gabriel의 정서 상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가치있는 죽음이 부의미한 삶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는 자신을 각각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 순간의 그의 정서 상태가 곧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그가 눈이 펄펄 쏟아지는 정경 속에서 죽음과 같이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침잠하지만, 그것이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His own identity was fading out into a grey impalpable world.”라는 귀전이 암시하듯이 이 때에 그가 속해 있는 세계는 삶도 죽음도 아닌 전혀 실체가 없는 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 눈의 의미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의 복합성 때문에 상징은 어떠한 논리적인 언어보다도 사람의 정서를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며, 이 작품에서의 눈도 Gabriel의 복합적인 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창 밖에서 쏟아지는 눈은 단순히 소설 속의 한 배경으로서의 눈이 아니다. 눈은 공간적으로 전 Ireland에 내린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Gabriel의 마음 속에도 내리고 있다.

“; Snow was general all over Ireland.”란 일기 예보가 없었지만 Gabriel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내리는 눈을 통하여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the Bog of Allen,” “Shannon waves,” 그리고 Michael Furey가 돌려있는 교외 언덕위에도 자신이 서있는 창 밖에서 지린 눈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눈 속에서 Gabriel이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작품인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Stephen Dedalus가 바닷가에서 잠들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과 유사하다. Stephen은 바닷가에서

bird-girl을 보고 잠들면서 환상적인 바다를 꿈꾸게 된다.

His soul was swooning into some new world fantastic, dim, uncertain as under sea, traversed by cloudy shapes and beings.(41)

즉 바다는 Stephen의 무의식 세계에 내재하고 있는 예술가적 본능을 상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Gabriel에게 자아 인식의 계기가 되는 감동도 눈의 image에 의해서 암시되고 있으며, 눈 자체의 지고한 순수성은 그가 경험하는 감동을 더욱 숭고하게 만들어 준다.

Ⅶ.

Joyce가 1906년 동생 Stanislaus Joyce에게 보낸 한 서한속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Sometimes thinking of Ireland it seems to me that I have been unnecessarily harsh. I have reproduced (in *Dubliners* at least) none of the attraction of the city for I have never felt at my ease in any city since I left it except in Paris. I have not reproduced its ingenuous insularity and its hospitality. The latter ‘virtue’ so far as I can see does not exist elsewhere in Europe. I have not been just to its beauty.(42)

1902년 조국 Ireland를 떠난 Joyce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게 된다.

*Dubliners*가 그 시기에 쓰여진 사실로 미루어 보면 건대 민지에서 Joyce가 말한 것처럼 “The Dead”는 그의 달라진 조국관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Gabriel이 단편 연설에서 “Irish hospitality”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Joyce의 이와 같은 생각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llmann도 Joyce가 조국을 떠난 후 조국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달라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Gabriel이 단편 연설에서 “Irish hospitality”를 언급하는 것을 “This was Joyce’s oblique way, in language that mocked his own, of beginning the task of

(39) Tindall, p. 47.

(40) Ellmann, p. 209.

(41)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Ltd., 1976), p. 173.

(42) *Selected Letters*, pp. 110~111.

making amends.”⁽⁴³⁾라고 말한다. 또 Joyce는 1912년에 발표된 “Gas from a Burner”에서도 조국 Ireland를 “... my first and only love Where Christ and Caesar are hand and glove!”⁽⁴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변모된 조국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Joyce는 조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Gabriel의 자기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인 투사를 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Gabriel의 감동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Joyce의 이같은 구체기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The Dead”에서 Gabriel이 처한 상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을 망각해버린 “마비된(paralysed)” 정신의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현실인 것이다. Gabriel의 모습은 곧 “modern version of archetypal figure”⁽⁴⁵⁾이다. 그러므로 그가 느끼는 감동은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참모습을 찾게 해주는 숭고한 체험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Bibliography—

1. Works by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Ltd., 1976.
Dubliners. Penguin Books Ltd., 1968.
Stephen Hero. ed. John J. Slocum and Herbert Cahoon, New York: New Directions, 1963.

2. Critical Works
 Allen, Walter. *The English Novel.* Penguin Books Ltd., 1976.
 Daiches, David. *The Novel and the Modern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Deming, Robert H. ed. *James Joyce: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 KeganPaul, 1970.

Ellmann, Richard. *James Joy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ed. *Selected Letters of Joy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7.
 Forster, E.M.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Ltd., 1962.
 Garret, Peter G.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Dubliner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3.
 Gifford, Don. *Notes for Joyce in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E.P. Dutton & Co. Inc., 1967.
 Hart, Clive. ed. *James Joyce’s Dubliners.* London: Faber & Faber, 1969.
 Humphrey, Robert. *Stream of Consciousness in the Modern Nove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4.
 Kenner, Hugh. *Dublin’s Joyce.* London: Chatto & Windus, 1955.
 Mason, Ellsworth & Ellmann, Richard. ed.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Peake, C.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Tindall, W.Y.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Trilling, Lionell. *The Experience of Literatur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9.
 Wilson, Edmund. *Axel’s Cast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9.

3. Other Reference
Webster’s New Collegiae Dictionary. Springfield: G. & C. Merriam Company, 1973.

(43) Ellmann, p.262.

(44) *The Critical Writing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p.242.

(45) Walter Allen, *The English Novel* (Penguin Books Ltd., 1976), p.353.